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동 1747-4번지 우:57995 (2018 6월 중순 교회 이전 주소)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n/a8a0U2qfUdH7Ll>)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1번째 이야기] - 미션이의 삶**

**[교회학교 졸업식]**

초등학생때부터 다녔던 정아 라는 아이~

정아는 주일 특별한 예배드리는 날이면 토요일에 제일먼저 나와서 풍선불고, 청소하고, 우리 아이들 돌봐주고, 주일엔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진천 크라운제과에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식구들 나눠 먹으라고 과자도 한 박스 보내주고 이것저것 챙겨 보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은 진천 중앙교회 청년부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짧은 야간 업무와, 특근으로 교회를 매주 가진 못하지만 그곳에서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어버이날 특송]**

부활절을 준비하는 토요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다른 날보다 청소를 구석구석하고, 계란을 삶아 포장하고, 강대상 꽃을 사러가고, 특별점심 메뉴를 준비합니다. 9년 동안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꽃집을 갑니다. 갈 때마다 저렴하게 화분을 주시고 여분의 꽃을 주셨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화분도 역시 저렴하게 해주시고 많은 꽃도 주셔서 교회입구와 예배당을 꽃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님들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주에 걸쳐 연습하고 어버이 주일에 특송을 했어요. 연습 때 고등부 아이들은 "챙피한데 우리 이거 꼭 해야되요?"하더니 특송 할때는 큰소리로 찬양하고 마지막에 하트도 제일 크게 그렸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도서관, 학원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생활 잘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새가족 이야기]

설이네 가족이 성문교회에 정식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 후 설이 엄마는 교회에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돕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주일에 자주 나오지 못하던 남편도 등록 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고 다른 성도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그 후 남편 입술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입술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설이엄마 이재연 성도님은 저와 동갑내기이고 코드도 잘 맞아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실새없이 하나님 자랑하다가 마음이 감동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한답니다. 제가 얼마 전 어깨수술을 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 재연 씨가 목사님과 세 아들들 반찬도 만들어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루에 한 번씩 병실에 찾아와 이야기 하고 기도제목을 주고받습니다. 그 나눔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이 귀한 가정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애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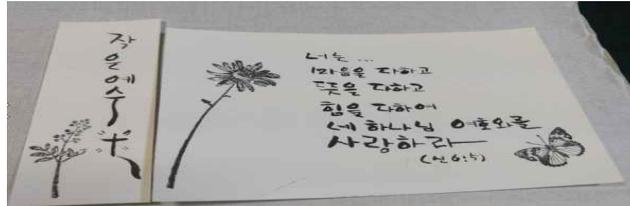


### [캘리 그라피, 피오피, 케익 만들기]

캘리 그라피 (피오피, 케익 만들기)

교회 환경 꾸미기를 하면 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에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캘리 그라피와 피오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배우기 시작했지만 배우는 시간은 제게 휴식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캘리작품은 몇가지씩해서 전도대상자에게 만들어 선물하고, 피오피는 말씀으로써 교회 붙여놓기도 하고 선물을 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나면 새 성전가서 환경 꾸미기 하려고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된시간이 되지 않을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일이 되면 선물을 구입해서 드립니다. 어느 날은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케익을 배우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르치는 곳이 몇 군데 없고 비용도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미선자매 친구가 케익 가게 에서 일하는걸 알고 가르쳐줄것을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월화목 늦은 저녁시간에 두달 배웠습니다. 아이싱 한달 배우고, 깍지 짜는것 보름 배우고, 빵만들어 실전케익 보름 했습니다. 첫번 실전케익은 4개 만들어서 감사한분들께 선물하고, 교회 점심식사후 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실전 케익은 6개 만들어서 전도대상자와 교회 주변 감사한 분께 선물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일 때 뜻 깊은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 [예배당 건축 이야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골조공사가 끝나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감독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교회, 교육관에 세입자가 적절한 때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배당에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칸막이와 유아실 벽을 허물고 빙 뚫린 채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베란다에 주방시설은 돌을 다 깨고 부셔서 창틀을 만들어 창문을 끼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탑도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에 바라옵기는 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역 하는 동안 전도지와 식혜, 차를 들고 밖으로 찾아가는 전도(노방전도, 관계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어깨수술을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젠 무거운걸 들거나 어깨에 맬수도 없으니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하는 중에 저를 잘 아는 멘토 선생님께서 답을 찾아주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껏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으니 이제 그 사람들을 사모님께 찾아 오시게해서 따뜻한 밥 한 끼와 차로 그분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교회라는 곳이 말씀을 통해 심을 얻을 수 있는 울창한 숲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남편과 제가 주님이 주신 성문교회를 통해 오천지구를 살리고 현 시대적 상황과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사 영혼들에게, 지역사회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이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이 남편과 제 안에 있게 하시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주일 오전 교회 차량 봉사와 오전 반주자로 섬겨 줄 분을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2. 교회 예배당에 들어 갈 교회장의자, 음향장비, 냉난방기(에어컨)가 필요합니다.  
또 태양광설치(오천지구 지역상 의무적으로)를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3. 연향동 교회(교육관) 그리고 사택 이사문제를 위해서. (교회 이전)
4.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아내가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 교회 개척 8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현재: 청장년 15명, 교회학교 아이들 15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중순이면 새로운 지역에서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